

세계스마트폰시장 급성장

스마트폰 산업이 올해도 급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은 손안의 PC라 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 e메일 송수신, 메신저 등 다양하면서 편리한 기능을 장착한 덕에 스마트폰 시장은 세계 경기 침체에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은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에 스마트폰은 오히려 2013년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모바일 웹 접속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스마트폰이 올해 보급 원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계스마트폰시장 지난해 50% 이상 급성장

이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를 비롯한 통신서비스사업자, 부품·소재·콘텐츠 등의 업체가 앞다퉈 진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 관련 전후방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GPS, 자이로센서, 바이오센서 등의 기능을 연계한 복합 제품 개발에 주력, 시장을 조기 선점하는 데 적극 나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에 이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굴지

의 기업과 또 한 번의 치열한 IT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운용체계 개발과 터치스크린폰 확산 등에 힘입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1억5000만대로 52% 급성장했다. 특히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스마트폰 시장은 1억7000만대로 약 13% 이상 성장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약 2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년에는 전체 휴대단말기의 30%

또 내년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 2013년에는 약 4억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휴대 단말기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인기를 누리는 등 전체 휴대 단말기 수요를 점차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일레로 마케팅인사이트의 지난 2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만명으로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0.7%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의사를 가진 사람 중 48.4%가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응답, 스마트폰의 인기도를 실감케 했다.

기술도 급변할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폰 기술은

모바일인터넷·음악·게임이 융합된 기능과 터치 스크린 방식이 대부분의 기능과 입력방식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엔 모바일 내비게이션, GPS, 센서, 바이오 센서와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고 멀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양한 기능·터치 방식의 입력기능 등으로 인한 전력 소모 최소화와 친환경 스마트폰 개발 또한 미래 기술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술 융복합화로 발전

노키아는 차세대 터치센서, 바이오 및 화학센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전자소자, 나노 선 솔라셀 등을 포함한 기술 융·복합화를 실현하는 차세대 제품 모프를 컨셉트폰으로 정해 개발하고 있다. 플렉시블 입력방식과 함께 플렉시블 소재, 기판 및 부품 그리고 기판 내 프린팅 인쇄방식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적용 응용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 융합부품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스마트폰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답게 해외기업들의 진출 및 시장 테스트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키아, 소니에릭슨, RIM, HTC 등이 자사 제품 저가화 전략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시장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능, SW 기술력, 사용자 편의성 등이 떨어져 국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메이커 고기능제품으로 경쟁력

반면에 삼성·LG·팬택계열 등의 기업은 주로 고가 고기능 제품 개발에 치중, 국내 시장에선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을 놓고 볼 때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과 제품 분석을 토대로 한 제품 다각화와 기술 선점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기술 동향을 보면 기존 세계 시장을 주도한 선진업체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 폴리아이시(PolyIC), 독일 머크, 미국 듀폰·캐봇, 일본 폴리플라스틱스·올박 등에서 차세대 단말용 플렉시블 기판·소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플렉시블 단말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세대 스마트폰 부품·소재 연구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기술 개발 방향은 단순한 기기 구현에 치중하지 말고 기초 소재·기반 부품모듈 단위의 연구개발을 우선 진행, 기반 기술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